

제10강 폴 비릴리오의 『정보과학의 폭탄』 I

(1교시)

사이버시대의 비관적 묵시록의 거장

폴 비릴리오(Paul Virilio, 1932~, 프랑스)의 *La bombe informatique*(1998)를 번역한 『정보과학의 폭탄』(배영달 역, 울력, 2002)이 오늘의 문제작입니다. 브라크와 마티스 등과 예술 작업을 했고, 철학을 공부했고, 건축학 교수도 하고 출판사 총서 기획도 하면서, 결국에는 테크놀로지와 미디어에 관한 전문적인 이론가로서 세계적인 울림을 자아내고 있는 비릴리오의 위세가 조금도 허풍이 아님을 이 책을 읽으면 쉽게 감지됩니다.

철학적인 훈련이 잘 된 탓에, 예술적인 감식력이 뛰어난 탓에,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사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관한 식견과 그 내용들의 연계성을 포착하는 변증법적인 사유 능력이 뛰어난 탓에, 이 책에서 보이는 비릴리오의 글쓰기는 대단히 창의적이면서 날카롭고 그러면서도 상당한 근거 제시에 의한 설득력으로 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아마도 글들의 대부분이 저널에 실렸던 것들이라 충격적인 효과를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독서에 불편함이 게재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릴리오는 이 책에서 세계화와 미국 주도의 미숙함과 유치함의 전 세계적 지배를 질타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마치 미국 위주의 현대 문명의 위기를 고발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상황을 짚어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개입되는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비릴리오의 초점은 정보공학, 생명공학, 로봇공학 등의 테크노 시대를 맞은 인류 전체의 가파른 운명을 그 근본적인 차별적 특성과 그에 따른 방향을 진단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대대적인 파국과 그에 따른 운명을 제시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설법을 하듯 최대한 비관적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쏟아냅니다. 그런 만큼 심각함과 진지함이 물씬 배어납니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을 보듯, 비릴리오의 이 책을 읽어가는 독자의 마음은 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릴리오의 이러한 묵시록적인 이야기 앞에서 피에르 레비의 낙관적인 이야기는 마치 어린아이의 ‘재롱’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비릴리오의 중요한 언명들

새로운 세계 시간의 개념은 그것이 지니는 즉각성으로 인해 거리의 실재를 없애버리며, 또한 국가와 국가 동맹을 조직화했던 지리적 간격의 실재도 없애버린다.(14)

역사의 종말 대신,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지리의 종말이다.(15)

미국의 군사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세계적이란 말은 유한 세계의 내부를 의미하며, 이러한 세계의 유한성은 수많은 병참술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국지적이란 말은 세계의 외각

지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 세계의 외부, 즉 유한 세계의 주변부를 의미한다.(16)

이러한 국지적인 도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적 메타 시티의 한 구역이나 한 구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테마 시티의 중심은 어디에나 있지만 그 주변은 어디에도 없다.(17)

(2교시)

원거리 통신이라는 조명으로 시작된 위조된 하루와 함께, 새로운 시간을 알리는 비상 조명인 인조 태양이 뜬다. 이때 새로운 시간이란 행위의 동시성이 행위의 연속성을 압도하게 되는 세계 시간이다. / 시각적(시청각적) 연속성이 점차 중요성을 잃어가는 국가간의 영토적 근접성을 대신하면서, 정치적 국경은 지정학의 실제 공간으로부터 이미지와 소리를 전달하는 시간 정치학의 실시간으로 이동했다.(19)

원거리에 존재하는 사건의 입체감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대상이나 공간의 3차원적 입체감보다 우위에 있다. (...) 이 모든 것은 안과 밖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뒤집는 데 기여한다.(20)

멀티미디어의 목적은 다가올 세계를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해, 일기 예보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낡은 텔레비전을 일종의 가정용 망원경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21)

어떤 인터넷 옹호론자들은 (인터넷에서) 생방송으로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웹의 폐회로 속에 갇힌 그들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한다. 일반화된 엿보기를 보여 주는 이런 사람들의 집산주의적 내성(內省)은 세계 단일 광고 시장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22)

미국이란 무엇인가? 이 마지막 물음에 대해 레이 브래드버리는 “미국은 램브란트와 월트 디즈니이다.”라고 즐겨 대답했다.(25)

미국식 유토피아의 진정한 주인공은, 카우보이도 군인도 아니며, 자신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몸을 돌리는 사람, 즉 개척자이고 탐험자이다. / 개척자는 인간 이동의 역사 속에서 다시없을 탐욕스러운 시선으로 공간을 바라보고 단숨에 달려간다. 미국에서 모든 것은 탐욕스러운 시선으로 시작되고 끝난다.(26)

영화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에너지였다.(28)

이제는 달려갈 수 있는 지평선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가짜 지평선 즉 대체 지평선을 만들어 낼 것이다.(29)

미국 영화 산업은 가짜 국경의 효과를 지나치게 증대시킴으로써 사회적 붕괴와 일반화된 정치적 실패를 불가피하게 초래할 수밖에 없었으며, ‘미국의 세기’ 끝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한다.(30)

“텔레비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베를루스코니는 주장했다.(31)

넘쳐나는 호기심, 탐욕스러운 눈, 시선에 대한 규제 철폐의 시대인 20세기는 사람들이 주장하듯 “이미지”의 시대라기보다는 광학의 시대 특히 착시의 시대였다.(33)

“영화는 얼핏 보아 한결같은 복장을 하고 있다.”라고 카프카는 주장했다. (...) 정체를 알 수 없는 - 군대와 경찰, 의사, 재정, 정치, 산업, 광고 등의 - 수뇌부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훑치고, 유용하고, 탐색하고, 조직했다.(34)

대중들은 결국 다가오는 지구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파멸에 희열을 느끼는 물질세계 속에서, 인류의 진화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동물 실험에 점점 더 맹목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35)

“내가 미국인들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히로시마가 전쟁 행위가 아니라 실험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일본인 친구가 고백했다.(35)

이제 물질세계는 어느 누구도 따르지 않는 무책임한 명령을 내리는 참모들과 함께 패주하는 군대의 모습처럼 사라져버린다.(38)